

한국현대시와 욕망의 윤리학

- 주이상스(Jouissance)를 중심으로

강동우*

- 차례 -

1. 시쓰기와 주이상스의 존재조건
2. 주이상스, 욕망과 실재의 윤리
3. 고통의 쾌락으로서의 시쓰기
4. 위반과 전복으로서의 시쓰기
5. 나가며

[국문 초록]

이 글은 '위반하고 즐겨라'고 말하는 문학의 불온함과 위반이 어떤 내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즉 이 글은, 최근 한국현대시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의 전통적인 본질론과 반(反)윤리 혹은 비(非)윤리적 경향 사이의 균열 양상에서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우리 시를 지배한 건 시의 내적 필연성과 유기적 연결성과 같은 기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양과 조교수. gangding@daum.net

과 본질, 또는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의미와 같은 목적과 정신이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우리 시를 지배하고 정치가 지배하고 초월이 지배한 셈이다. 이런 토양 위에서 주이상스의 윤리가 보여주는 시의 불온성과 파격성은 우리의 문학사적 관행으로 보아 그리 낯익은 모습이 아니다. 욕망과 위반의 시쓰기는, 심미적이기보다는 무언가를 압도하고 당황하게 하며 노골적으로 충격을 주는 체험과 경험들을 산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사물을 재현하거나 미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시적 성취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나 충격을 산출하는 것을 시와 예술이 지녀야 할 임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실험과 시적 상상력으로 기존 시의 문법에 대항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배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그런 점에서 자유를 의미한다.

주제어 : 주이상스, 위반의 시쓰기, 욕망, 욕망의 윤리, 불온성, 실재, 실재의 윤리

1. 시쓰기와 주이상스의 존재조건

1857년 현대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출간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표현의 과격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도덕, 사디즘, 동성연애, 그리고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서양 사회가 기독교 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기존의 윤리와 도덕관념을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으로 충분했다. 이렇듯 현대시는 그 출발에서부터 기존의 윤리와 가치체계를 흔들고, 부정하고, 위반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시(문학)와 윤리 문제는 문학의 사회성이나 효용성의 측면에서 항상 문제적인 담론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문제적이다. 이 글은 ‘위반하고

즐거라’고 말하는 문학의 이러한 불온함과 위반이 어떤 내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짧은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최근 한국현대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리’의 전통적인 본질론과 반(反)윤리 혹은 비(非)윤리적 경향 사이의 균열 양상에서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프로이트는 죽음충동을, 에로스와 함께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충동인 타나토스로 설명한다. 프로이트에게 인간을 지배하는 두 축이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이라면, 라캉은 죽음충동을 보다 근원적인 지점에 위치시킨다.¹⁾ “죽음은 주체의 삶의 근원이 되는데, 그 삶이란 죽음이 단지 위험을 표상할 뿐인 자아의 상상적 삶이 아니라 욕망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다. 죽음이란 욕망의 ‘저편’, 즉 금지된 것이다.”²⁾ 이는 충동(drive)과 욕망(desire)의 구별에서 강렬한 암시를 받을 수 있는데, 충동과 욕망은 인간이 안고 있는 ‘결여’의 지점에서 갈라지게 된다. 라캉의 3항 체계(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에서 결여는 상징계가 안고 있는 ‘구멍’이며, 그것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에서 욕망의 환유가 발생한다. 이때 ‘결여’ 속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 충동이며, ‘결여’의 너머 ‘대상 a’라고 불리는 ‘실재’에의 열망을 지닌다. 다시 말해 ‘대상 a’를 둘러싼 욕망과 충동의 분리는 상징계와 실재계의 간극만큼 큰 것이다.³⁾ 욕망은 상징계 내의 환상을 직조해내는 것과 관련되지만, 충동은 실재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불가능성의 반복이다. 충동은 상징계의 균열을 촉발시키므로,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실재를 향한 열망으로 인해 반복되는 ‘죽음충동’이 곧 주이상스(jouissance, 향락, 향유)⁴⁾를 유발

1) 박대현, 「혁명의 결여와 주이상스」, 『시현실』 2010 봄호. 24면.

2) Bice Benvenuto and Roger Kennedy, 김종주 옮김, 『라캉의 정신분석 입문』, 하나의학사, 1999. 212면.

3) 자크 알랭 밀레 편, 맹정현·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 새물결, 2008. 254면.

4)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구조주의 언어학과 연결하여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상상계와 상징계로 이름붙이고 쾌락원칙 넘어 죽음충동이 있다는 프로이트의 발견에서 실재계라는 또 하나의 영역을 설정한다. 프로이트의 죽음충동과 리비도를 한데 묶

하게 되는 것이다.

시 쓰기, 특히 시적 모험은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관계한다. 그리고 “무의식은 말하는 존재에게 금지된 것, 즉 주이상스와 죽음을 표현해 보려 애쓴다”⁵⁾는 점에서 시는 본질적으로 죽음의 장르이다. 그렇게 본다면, ‘주이상스’와 시의 관계는 사실상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시쓰기는 ‘주체’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발현이다. 따라서 시쓰기는 근본적으로 ‘결여’ 지점을 껴안고 있다. 시쓰기가 ‘결여’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여’를 껴안고 있는 시의 실체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위대한 시쓰기는 실패한 시쓰기다’⁶⁾라는 역설처럼, 시쓰기는 ‘결여’를 안고 있는 불완전체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체와 시쓰기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결여’를 지속적으로 사유해야 하는 것은 ‘결여’가 ‘윤리’의 문제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주체의 ‘결여’는 주이상스를 뿜어낸다. 주이상스가 지닌 전복적 에너지를 완벽한 성체로 여겨지는 상징계를 균열시킨다. 주이상스의 이러한 기능은 상징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윤리적인 것이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상징계 내에서 작동하는 욕망의 주체를 충동의 주체로 인도하는 데 있다.⁷⁾ 충동의 주체는 상징계의 결여 지점에서 발생하며, 상징계의 바깥을 향유하고자 함으로써 상징계에 균열을 내는 윤리를 동반한다. 주체의 결여지점인 ‘실재’(the Real)와 조우함으로써 주체의 윤리가 발생할 수 있듯이, 시쓰기의 윤리 역시 ‘실재’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주이상스’를 통해 새롭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⁸⁾

어 “주이상스”라고 이름 붙인다.(권택영, 『프로이트에게 돌아가기: 라캉의 기표는 사랑인가 증오인가』, 『현대정신분석』,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04. 1면)

5) Bice Benvenuto and Roger Kennedy, 위의 책, 같은 면.

6) 지젝의 “모든 위대한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다”를 변주함.

7)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361면.

8) 박대현, 위의 글, 24-26면 참고.

2. 주이상스, 욕망과 실재의 윤리

프로이트는 죄책감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라캉은 죄책감이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욕망’이 윤리의 기준이라 정의한다.⁹⁾ 『세미나 7』에서 제시되는 라캉의 윤리는 정신분석의 윤리로서 욕망의 윤리이다. ‘욕망의 윤리’ 준칙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네 욕망을 양보하지 말라”¹⁰⁾라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라캉은 윤리적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서 “윤리의 역설 혹은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욕망에 일치하게 행위하였는가?”¹¹⁾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라캉은 선과 행복, 그리고 건강과 같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건전한’ 윤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그 대신에 금지의 위반을 통하여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윤리적 대안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라캉은 전통적인 윤리를 지배권력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라캉의 정신분석 윤리의 근거는 가장 비윤리적인 욕망과 금지된 도덕적 행위를 위반하는 데서 발견된다. 그의 정신분석 윤리는 죽음 충동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며, 충동과 희열을 가지고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거부하는 기쁨과 욕망이다. 즉 주이상스이다. 그러므로 라캉은 욕망이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새로운 윤리는 금지된 충동에서 비롯된 개인적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는 위반적인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캉에 의하면, 인간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며 언어에 의해 구성된

9) 라캉에게 ‘죄(의식)’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양보하거나 포기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 기준이다.

10)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 동문선, 2001. 61면.

11) Jacques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 Porter, D. Norton: New York and London. 319면. 알랭 바디우, 위의 책, 61면 재인용.

주체된 주체이다. 주체만이 아니라 ‘윤리’ 또한 욕망을 담고 있는 무의식적인 것이며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럴 때 ‘윤리’는 ‘나’를 구성하는 힘이 된다. 문학의 윤리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시 사회적 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주판치치의 ‘실재의 윤리(ethics of the real)’에 근거하여 ‘일상의 윤리’를 찾고자 한다.

‘실재의 윤리’는 알렌카 주판치치의 개념이다. ‘실재의 윤리’에서 그가 말하는 ‘실재(the Real)’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형된 단순한 현실(reality)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또한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늘 매개된 현실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순수한 현실이 있다는 사유와도 다르다. 주판치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실재를 인식할 때, 현실 그 자체의 모순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이거나, 다소 타락하고 오인된 현실 따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재란 현실자체가 갖는 적대의 모순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¹²⁾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실재’는 “현실이 순조롭게 기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폐되어야 하는 지점”이며, 그래서 실재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 내재하는 모순”이다. 여기서 ‘실재’를 우리가 상정하는 ‘일상’으로 고쳐 읽어도 무방하다. 나는 이것을 ‘일상’의 순간에서 발견되는 ‘삶의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실재’는 일상을 떠나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상을 뒤흔들며 “잉여적으로 부과되는”(바디우)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과 같은 의미

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현재 ‘주어져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일이다.

일상의 진리는 현실에서 우연히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일상의 상징적 질서로부터 ‘탈구된’ 상태로 만드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주어진 연속성 속에서 ‘파열, 단절, 혹은 중단’으로서 나타난다. 실재, 곧 일상의 진리와 조우했을 때 주체가 파괴된 상징적 질서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주판치치는 이런 강제된 물음 속에서 윤리가 작동한다고 말한다.¹³⁾ 여기서 우리는 실재를 상징적 우주(질서)를 뒤엎고, 이 ‘우주의 재배치’를 이끌어내는 불가능한 것으로 조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한다”.¹⁴⁾ 그러니까 일상의 진리는 주체에게 주어진 상징적 체계 역시 하나의 허구적 질서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문학은 이러한 현실의 허구성을 추구하고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일상의 윤리’로 명명하고자 한다.

윤리는 때때로 외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윤리적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가지적으로 드러내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주체와 세계가 절합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내면으로의 전회’만으로는 윤리적 주체를 구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주체의 깊은 내면으로의 회귀는 진정한 자기를 내면으로부터 재발견하기를 강요하는 현대의 이데올로기이다. 우리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일상’에서 발견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을 지루한 일상이라 한다. 일상은 언제나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일상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실재’와 같은 것이다.

12) 인디고 연구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슬라보예 지젝 인터뷰), 궁리, 2012. 288-289면 참고.

13) 알렌카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358면.

14) 바디우, 앞의 책, 54면

우리는 일상에서 탈출하여 여행을 다녀와도,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축제를 벌여도, 그것들이 끝나면 다시 일상성은 집요하게 계속된다. 일상의 핵심은 반복에 있다. 원형적 반복과 선형적 반복이 그것인데 그것 사이의 미묘한 균열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균열과 갈등의 파편 또한 일상이며, 그 속에서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일상은 우리의 삶이며, 죽음이다. 여기에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일상을 변용하는 것 또한 일상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개조하는 것은 내 자신과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 잃어버린 삶의 양식과 축제를 되살리고,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소유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상을 변용한다. 차디찬 도시의 메마른 일상성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여 삶을 개조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일상인 셈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윤리는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길 때(즉 일상을 벗어났을 때) 발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학이다. 일상성을 지향하는 아주 사소하고 비루한 데에서 문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랑시에르가 “문학은 개별적 인물들의 행위나 욕망, 주체화의 수준이 아니라, 선개체적인 미시적 사건들과 흐름들을 주목하고 사물들의 표면에 상형문자처럼 새겨진 도저한 사회적 무의식을 해독하는 일”(「감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서」)에 종사해야 한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비루한 일상은 우리에게 직접 ‘실재’(The real)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상의 윤리는 일상의 외부에서 초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일상의 윤리는 일상에서부터 나왔고, 또 일상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일상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문학에서 일상의 윤리는 변형된 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문학에서의 일상성은 언제나 일상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추구

하는 것이다. 거대담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비루한 데에서 보편성과 일상성은 획득될 수 있다. “예술과 일상이 구분되지 않을 때, 문학은 개별적 인물들의 행위나 욕망, 주체화의 수준이 아니라 미시적 사건들과 사물들의 표면에 새겨진 사회적 무의식을 해독하는 일이 중요하다”¹⁵⁾라는 랑시에르의 견해는 결국 예술의 정치성이 일상의 외부에서 초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배담론의 구속에서 벗어나 감각을 재분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의 진정성이 “일상성의 변양된 장악”에 다름 아니라는 하이데거적인 통찰이나 “일상적 삶이야말로 구원에 전념한다”는 레비나스의 역설적 관점과 동일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근본 성향과 윤리적 의식 사이의 거리를 조장하고, 이 눈앞의 간극만을 보도록 강제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순수욕망의 만족을 요구하는 ‘욕망의 윤리’와 ‘실재(일상)의 윤리’는 결국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윤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는 욕망의 무한한 실현을 위해 다양성과 독특성을 끊임없이 열거할 것이다. 그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하여 일상에서 벗어날 때에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 윤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창출하면서 지배질서와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며, 다양한 욕망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열린 질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윤리는 성숙한 주체의 욕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지배적 윤리에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단절과 파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현대시가 추구하는 윤리와 다를 것이 없다. 시의 윤리는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종속되

15) 양창렬, 「랑시에르 인터뷰 : “문학성에서 문학의 정치”까지」, 『문학과사회』 2009 봄호. 443면.

16) 김홍중, 「행복의 예술, 그 희미한 메시아적 힘」, 『문학동네』 2009 봄호. 325면.

지 않는다. 시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가 윤리와 독립적일 때, 즉 자율성을 획득할 때에 역설적으로 윤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끊임 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현대시의 윤리일 수 있다. 이성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상적인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의 끊임없는 이행이다. 예술이 진정한 삶을 보전하기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즉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로 푸르게 하지 못한다」). 일상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고 지배적 윤리에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열린 질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현대시의 윤리일 것이다.

3. 고통의 쾌락으로서의 시쓰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이상스는 죽음충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죽음충동은 주체가 안고 있는 상징계의 결여를 향한 충동이다. 결여는 실재계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주체의 환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실재계는 언어로 상징화될 수 없으며 상징화의 실패와 거부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에, 실재는 인간 주체가 닿을 수 없는 불가능한 ‘바깥’이다. 실재계는 그 불가능성 때문에 결핍의 주체에게 매혹적인 충동의 대상이 된다. 실재계는 상징계의 ‘바깥’이다. 그 바깥의 세계는 언어로 포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죽음’의 세계라 불려왔으며, 죽음의 세계에 대한 사유는 곧 블랑쇼가 말하는 ‘바깥의 사유’이기도 하다. 동시에 ‘바깥’은 매혹적인 세계이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상징계 내의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비(非)인간의 영역인 그곳은 시적 사유의 오랜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시는 죽음충동이 작동하는 예술로서 수많은

시인들이 죽음을 노래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¹⁷⁾

유한한 존재가 그 존재를 탈취당할 때 가장 폭력적인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유한한 존재를 그 자체로 남겨주지 않는다. 언젠가 갑자기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은 유한한 존재를 항상 고통 속을 헤매게 한다. 바타이유에 의하면, 죽음을 초월하여 존재를 무한한 연속적 흐름으로 이끄는 것은 사랑, 에로티즘이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 에로티즘은 “존재의 가장 내밀한 곳, 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건드린다.”¹⁸⁾ 그것은 일종의 파괴행위이며, 이 파괴행위에 의해 존재는 흥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연속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박찬일의 시 「사월의 꽃」에서,

얼마나 더 가야 그만 벌리겠느냐

미리 오프리겠느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월을 그냥 지나치겠느냐

그만 영업하겠느냐

죽으면서도 좋은 죽으면서도 좋다고 하는

죽고도 또 벌리는

꽃, 창부, 사월의 창부

사월의 사랑!

- 박찬일, 「사월의 꽃」¹⁹⁾ 전문

17) 박대현, 앞의 글, 26-27면.

18)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17면.

19) 박찬일, 『나는 푸른 트럭을 탔다』, 민음사, 2002.

과 같이 노래된다. 이 시에서 박찬일은 사랑을, 꽃이 피는 것을, 몸을 파는 창부와 관련시킨다.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형상을 창녀가 음부를 벌리는 것으로 대치시킨 것은, 사드(Sad)식으로 말하면, 죽음과 친숙해지기 위해 죽음과 방탕을 결합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꽃의 개화를 “죽으면서도 좋은 죽으면서도 좋다고 하는// 죽고도 또 벌리는” 성행위의 절정에서 느끼는 흥미함과 연결시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혼돈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이상스이다. 라캉의 주이상스는 일반적인 쾌락이 아니다. 그것은 강렬한 성적 쾌락인 동시에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를 넘어서고 언어상징도 넘어서는 전복(顛覆)의 충동이다. 향유, 향락, 희열의 의미를 포함하는 주이상스는 강렬한 쾌락이고 현실원칙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이 된다.²⁰⁾ 이런 점에서 꽃의 개화는 고통속의 쾌락, 죽음의 충동과 결합된 쾌락을 의미한다. 그것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죽음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도전과 다름 아니다. 이런 반복과 도전은 죽음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날 아침, 무성한 아버지의 아를 떼어내 심었다 가랑이가 찢어진 겨드랑이가 찢겨진 그날 아침, 단호한 아버지의 버를 떼어내 심었다 심장이 쪼개진 간격이 벌어진 그날 아침, 새 아버지를 경작하였다 새 침대를 마련하였다 새 관습을 주입하였다 찢어진 아버지 벌어진 아버지 불구의 아버지가 태어나리라 불구의 아버지께 사식을 대접하리라 그날 아침, 아버지는 불구가 되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주저앉았다 야금야금 물을 주리라 간혹 식사시간을 잊으리라 회복이 빠른 아버지 킁킁대며 번식에 집착한 아버지 어느 날 아침 침대마다 무성한 아버지 똑같은 관습을 발육할 아버지

20) 김승환, ‘주이상스(Jouissance)’ : <https://blog.naver.com/mlm00/90147202949> 검색일 2017 10월 30일.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뿌리없는 아버지 내가 경작한 아버지

- 조말선, 「이식」²¹⁾ 전문

조말선 시인의 「이식」 전문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버지의 ‘아’를 떼어내고 ‘버’를 떼어내어서 가랑이를 찢고, 겨드랑이를 찢고, 심장을 쪼개고, 새 침대를 마련하여 새 관습을 주입하고 불구의 아버지, 똑같은 관습을 발육하는 뿌리 없는 아버지를 경작한다고 한다. 시인은 나무를 이식하는 것을 아버지의 경작에 비유하고 있는 바, 아버지를 이식한다는 발상자체가 특이하고 도발적이다. 프로이트가 원초적 아버지의 살해와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를 공동체형성의 원리로 가정한다면, 라캉은 아버지의 ‘빈자리’의 기능에 더 주목한다. 빈자리는 자식들의 욕망과 관계가 있다. 라캉에 따르면 아들들은 한편으로는 아무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환상 속에서 그 자리에 도달하려는 모순되고 금지된 욕망을 꿈꾼다.²²⁾

이 시에서 조말선은, 신현림의 “세상은...에비의 세계였다”(「에미 왕릉」)처럼 가부장제 사회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김언희가 “모든 애비는 의붓애비”(「아버지,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을 뿌리 없는 하나의 허구(빈자리)로 만들어버린다. 이 허구가 금지된 욕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습을 발육하는 무수한 아버지를 경작하는 데에서 ‘아버지의 이름’(Nom-du-Père)²³⁾에 대한 도전적 태도를 읽을 수 있

21) 조말선, 『등근 발작』, 창비, 2006.

22) 김석,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두 입장」,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5. 12면.

23) 아버지가 대표하는 사회적인 것.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타인의 존재. 거세하는 아버지, 이런 부권적인 기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다.(김석, 「주체화와 정신분석 윤리」,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6. 12. 62면)

다. 그것은 ‘아버지’를 언어 기호로 치환시키는 시인의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이 시에서 아버지는 하나의 언어 기호이고, 따라서 아버지의 ‘아’를 떼어내고, ‘버’를 떼어내는 행위는 언어 놀이를 뜻한다. 언어(아버지)가 이성, 지배 이념, 남녀대립의 이분법적 질서를 표상한다면 언어 놀이는 이러한 언어질서, 현실 체계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현실의 세계를 넘어 기호의 세계에서 환상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놀이 그 자체를 보여준다. 그것은 아버지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욕망, 욕망 그 자체만으로 욕망하고자 하는 잉여 주이상스와 다르지 않다.

주지하듯이 라캉은 『세미나 7』에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예를 들어 ‘욕망의 윤리’를 제시한다. 안티고네가 왕명을 거역한 결과는 많은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여기에서 왕의 명령은 실증법으로 대표되는 ‘아버지의 이름’이며 죽은 이들에 대한 숭배는 신성성으로 상징되는 신의 이름이다. 안티고네가 아버지의 이름인 법을 거부하는 것은 저항과 전복의 숨은 열망 때문이다. 이것을 라캉은 주이상스라고 명명한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하는 주이상스는 처벌을 받더라도 법과 제도를 파괴하여 금기를 깨고 싶어한다. 여기서 주체의 분열이 생긴다. 즉 말하는 요구와 원하는 욕망이 다르다. 그런데도 주체는 이 분열로 인하여 생긴 결핍을 충족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철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체는 위험하면서도 불온하게 ‘아버지의 이름’이자 ‘대타자’인 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듯 잉여 주이상스가 있다. 사회의 법과 질서 속에서 허락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잉여 주이상스는 주이상스 그 자체가 목표이다. 이는 과잉된 힘이기 때문에 분출될 수밖에 없고 전복의 주이상스가 분출되면, 안티고네에서 보듯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법을 파괴한다. 이것은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의 역설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나친 쾌락은 쾌락이 아니라 불쾌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4. 위반과 전복으로서의 시쓰기

주이상스는 쾌락원칙을 넘어선 곳에 있다. 상징계는 주이상스를 금지한다. 주이상스는 상징계를 균열시키는 자기소멸적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시가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순간, 시는 주이상스와 만난다. 쾌락원칙을 위반한 곳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역설적 만족이 바로 주이상스이기 때문이다. 주체의 환상을 이루는 상징계에 대한 위반은 주체를 ‘탈구’시키는 일이다. 주체의 ‘탈구’는 주체의 새로운 정향을 내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의 윤리가 발생하며, 이것이 ‘실재의 윤리’가 된다.

줄이 돌아간다 줄 돌리는 사람 없이 저 혼자 잘도 도는 줄이 허공을 휘가르며 양배추의 뻥뻥한 살결을 잘도 썰어댄다 나 혼자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두 살 먹은 내가 개똥 주워 먹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다섯 살 먹은 내가 아빠 밥그릇에다 보리차 같은 오줌 질질 싸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아홉 살 먹은 내가 팬티 벗긴 손모가지 짹 물어뜯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열세 살 먹은 내가 빨아줘 빨아주라 제 자지를 꺼내 흔드는 복순이 할아버지한테 침 튀 빨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열여섯 살 먹은 내가 본드 마시고 토약질해대는 친구의 뜨끈뜨끈한 녹색 위액 교복 치마로 닦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열아홉 살 먹은 내가 국어선생이 두 주먹에 날려버린 금 씌운 어금니 두 대 찾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스물두 살 먹은 내가 네 번째 애 떼러 간 동생 대신 산부인과에서 다리 벌리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스물다섯 살 먹은 내가 나를 걷어찬 애인과 그 애인의 애인과 셋이서 나란히 엘리베이터 타 오르다 말고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스물여덟 살 먹은 나 혼자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 줄 돌리는 사람 없이 저 혼자 잘도 도는 줄이 돌고 돌수록 썰면 썰수록 풍성해지는 양배추처럼 도마 위로 넘쳐나는 쭈글쭈글한 내 그림자들이 겹겹이 엉킨 발

로 폴 짝 폴 짝 줄 넘어가며 입 속의 혀 쪽쪽 뽑아 길고 더 길게 줄을 잇대
나간다

- 김민정, 「나는야 폴짝」²⁴⁾ 전문

김민정의 「나는야 폴짝」 전문이다. 줄넘기를 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는 시라고 할까. 어두운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시라고 할까. 여기서 ‘줄’은 “저 혼자서도 잘도 도는” 세월을 의미하고, “양배추의 뽀뽀한 살결”은 줄넘기를 하면서 흘리는 땀(노폐물)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벗겨지는 자신의 허물(“쭈글쭈글한 내 그림자들”)을 의미한다. 재미있는 것은 “폴짝”이라는 의태어이다. 화자가 줄을 뛰어 넘는 형상이기도 하고, 양배추가 썰려나가는 형상이기도 하고,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리는 형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폴짝 줄 넘고 있었는데”라는 언술은 이 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모태이자,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줄을 넘는 행위는 화자의 내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표류하는 경험들을 거의 3-4년 단위로 재생시킨다. 그 경험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쭈글쭈글한 어두운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내면 속의 어둡고 무거운 기억들은 “폴짝”거리는 경쾌한 어조와 대비되면서 그 내용이 무화된다. 그러므로 줄을 넘는 행위는 자신의 허물들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잘라내는 일이며, 현실의 경험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균열된 나의 ‘실재’인 것이다. 특히 ‘폴짝’의 반복은 이런 균열된 ‘나’를, 상징계에 구멍이 뚫린 ‘나’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입 속의 혀 쪽쪽 뽑아 길고 더 길게 줄을 잇대나간다”는 언술을 보면, 그것은 고통을 동반한 즐거움이다. 그런 면에서 김민정의 시적 감각은 욕망을 즐기는 언어, 언어를 즐기는 욕망으로서의 글쓰기, 라캉식으로 말한다면 주이상스의 글쓰기에 해

당한다. 이때 욕망 자체가 주이상스이고, 그 언어 자체가 주이상스인 셈이다.

욕망을 그 자체로 즐기고, 언어를 그 자체로 즐기며, 고통마저도 그 자체로 즐기는 주이상스는 욕망하는 기계와도 같다. 이때 욕망은 주체의 능동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의 에너지에 의해 모든 방향, 모든 방면으로 무한히 그의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 무한한 반복, 인접한 것과의 무한한 관계 맺기, 무한한 넘나듦, 이러한 것들이 그 요소를 제한 없이 운동하게 하고 성장시킨다.²⁵⁾ 이런 언어, 진정한 쾌락을 위한 욕망의 언어는 무의식적 유희, 혹은 파편화된(결여된) 주체의 주이상스와 만나는 것이다. 다음의 시를 보자.

1. 팔

너를 만지기보다
나를 만지기에 좋다
팔을 뻗쳐 봐 손을 끌어당기는 곳이 있지
미끄럽게 일그러트러지는, 경련하며 물이 나는
장식하지 않겠다
자세를 바꿔서 나는
깊이 확장된다 나를 후비기 쉽게 손가락엔 어떤 반지도
끼우지 않는 거다
고립을 즐기라고 스스로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팔은 두께와 결과 길이까지 적당하다

2. 털

이상하기도 하지 털이 나무에, 나무에 털이 피었다 밑동부터 시커멓게

24) 김민정,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열림원, 2005.

25) 들뢰즈, 『앙띠 오이디푸스』(최명관 역), 민음사, 1997, 563-6면 참고.

춤추는 터럭, 멧돼지가 벌써 건드렸구나

밑에서 돌다가 한참 버터보다가 몸을 날렸을 것이다 굶주린 짐승, 높다
높은 굴참나무를 들이박기 시작했다 몽땅몽땅 털이 뿜어나가는 줄도 몰랐
을 한밤의 사투, 살갓이 뜯겨나간 산은 좀 울었을까

나는 도토리 한 알을 발견했다 가련한 짐승이 겨우 떨어뜨리고 채 찾
아가지 못했다 멧돼지가 쫓겨가고 나서야 나무는 던져주었을까

도대체 길 잘 못 든 나는, 손톱을 세워 나무를 휘감는다 한 응큼의 털을
강박적으로 비벼댄다 메시지 온다

- 김이듬, 「지금은 자위 중이라 통화할 수 없습니다」²⁶⁾전문

“지금은 자위 중이라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시 제목에서부터 기존
의 시에서 볼 수 없는, 위반과 전복의 상상력을 읽어낼 수 있다. 자위 중
이라 통화할 수 없다니! 여성의 자위를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전통적인 시문법에서 금기시되어 온 것을 여과없이
배출해내는 과감성. 금기를 깨는, 시의 문법을 깨는 김이듬의 욕망은 분
명 반항적이다. 그것이 남성 폭력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고립을 즐긴다는 데에서 더 저항적이다. 무엇보다 이
반항은 신랄하고 통렬한 비판의식이다.

여성의 자위는 잃어버린 세계의 영역을 되찾는 것이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자위는 불온한 것,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러니까 남성의 폭력에 의해 감춰져야만 했던 여성의 자위행위를 과감하
게 드러내는 일은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성에 대한 도전이다. 통쾌한 자유이고 해방이다. 그러
므로 강박적으로 털을 비벼대면서 고립을 즐기는 행위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통화할 수 없음, 소통 불능은 오히려 고립과 반항의 힘으로

26) 김이듬, 『별 모양의 얼룩』, 천년의시작, 2005.

결여된 주체를 더욱 충동질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가 던져주는 충격은 전통적인 시의 문법에서 벗어나 있
다는 점이다. 세상에 전통적이고 정해진 법이 어디 있는가. 법의 금지는
항상 욕망을 낳는다. 욕망이 먼저 있고 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기가
먼저 있고 욕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금지된 욕망을 노래하고, 그 욕망이 묘한 쾌락을 준다. 그러나 금지에 대
한 도전은 쾌락을 낳고 정신적 해방과 자유를 주지만, 쾌락의 원칙을 넘
어서는 순간 영혼은 더럽혀지고 마음은 괴로워진다. 쾌락이 고통이 된다.
고통의 쾌락이 된다. 주이상스(jouissance)다. 그러므로 그녀의 욕망은
“일그러트려지는” 고통의 욕망이다. 그것이 자위라는 점에서 이 욕망은
대상이 없는 떠도는 욕망이고, 황폐한 욕망인 동시에 황홀한 욕망이다.²⁷⁾
멧돼지를 거부하는 오르가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Non-du-Père)
에 저항하는 오르가즘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 법과 제도를 파괴하는
저항이고 전복이며, 주이상스의 욕망 윤리에 따른 결과다.

아버지는 죽어서/ 손가락이 되었어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손가락이 되어/ 내 손가락 뒤에 포개졌어요//

오막살이 집 한 채//

수저통 속은/ 비좁구나, 딸아//

고기 잡는 아버지와//

내 젓가락 사이로 아버지/ 젓가락이 파고 들어요//

철 모르는 딸 있네//

27) 일반적으로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은 성적인 희열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이것은 주이상스가 ‘육체’와 맺는 성적인 관계가 유일한 영역은 아니지만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봉준, 「주이상스, 욕망을 넘어서는
실재의 윤리」, 『시현실』 2010 봄호, 21-22면)

아버지가 된 손가락이/ 아버지가 된 젓가락이//
 아버지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아버지를//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쪽쪽 빨아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 김언희, 「가족극장, 클레멘타인」²⁸⁾ 전문

김언희의 「가족극장, 클레멘타인」 전문이다. 이 시에서 손가락과 젓가락은 성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소녀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이다. 이 시를 2연과 4연, 6연, 8연, 11연에 주목해서 읽을 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넓고 넓은 바닷가에 고기잡이 집 한 채’로 시작하는 민요를 떠올리며 읽는다. 그러니까 ‘넓고 넓은 바닷가에 고기잡이 집 한 채’에 오순도순 살고 있을 아버지와 딸의 낭만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는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나가다 보면 아버지와 클레멘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의심스러워진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치환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시는 일상적인 통념을 깨어버린다. 설령 아버지와 딸의 사이가 우리가 통속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시의 묘미는 민요에서 상상하던 것과는 다른 반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데 있다. 지극히 평범한 내용일 수도 있는, 평온한 일상을 묘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가 우리에게 던져 주는 것. 우연히 들어오는 것. 어쩌면 일상을 깨어버리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를 좀 더 본질적인 질문 속으로 던지는 것. 그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윤리학 일 것이다. 그러니까 김언희의 위의 시는 기성 질서(윤리)와 갈등의 방식으로 진정성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28) 김언희,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 민음사, 2000.

특히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상(실재)의 윤리는, 일상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감추면서 폭로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대타자’에 대한 도전이며, 진정한 주이상스에 대한 갈망이다. 원래 모든 주체는 상징기호를 얻기 위하여 거세당한 존재이고 그래서 소외와 결핍이 생긴다. 이때 대타자로 등록하면서 내면에 숨겨둔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주이상스의 원천이다. 이 충동적 주이상스가 언어의 사슬[상징기표, 법]을 끊고 강렬한 파괴의 힘으로 작동하면 실재계에 도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주이상스는 남근주의적이지만 생물학적인 남녀나 사회적 젠더와 다른 정신적 남녀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회질서를 인정하는 남성적이고 순응적인 주이상스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거부하는 여성적이고 보조적인 주이상스는 대타자를 전복하는 주이상스의 핵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런 라캉의 이론을 빌려 혁명적인 주체를 상징했는데, 그 혁명적 주체는 보편적 쾌락원리를 넘어서서 대답하고도 과감하게 대타자에게 도전하는 힘이다.

5. 나가며

그 동안 우리 시를 지배한 건 시의 내적 필연성과 유기적 연결성과 같은 기원과 본질, 또는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의미와 같은 목적과 정신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단시적 완결성을 중시하는 서정시가 시의 권좌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우리 시를 지배하고 정치가 지배하고 초월이 지배한 셈이다. 이런 토양 위에서 주이상스의 윤리가 보여주는 시의 불온성과 파격성은 우리의 문학사적 관행으로 보아 그리 낯익은 모습이 아니다. 최근 젊은 시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과 시적 상상력으로 기존 시의 문법에 대항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배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그런 점에서 자유를 의미한다.

욕망과 위반의 시쓰기는, 심미적이기보다는 압도시키고 당황케 하며 노골적으로 충격을 주는 경험들을 산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까 사물을 재현하거나 미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시적 성취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나 충격을 산출하는 것을 시와 예술이 지녀야 할 임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류의 시들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을 인상지우는 데에 더 도드라져 보인다. 이 인상은 때때로 강렬해서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환상을 가로질러 환상에서 깨어나려는, 그래서 상징계에 구멍을 뚫고 '실재'에 도달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상은 금이 간 주체, 분열된 주체가 환상 속에서 '대상 타자 a'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러나 금이 간 주체가 대상 타자가 되면 이런 환상에서 깨어난다. 상징계, 대타자가 대상 타자, 곧 잉여 향락을 낳는다. 상징계가 잉여 향락을 생산하는 것은 상징계, 언어 질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상징계의 결여이다. 언어질서, 법에 틈이 있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자는 이런 틈, 잉여를 즐기고, 아방가르드 시인들은 상징계, 언어질서의 틈, 균열, 잉여를 즐기고, 그런 잉여의 극대화를 노린다. 결국 주체가 대상 타자가 되는 것은 주체가 상징계 결여, 잉여 향락이 되고, 따라서 욕망을 억압하거나 위장하거나 남에게 위임하지 않고 곧장 욕망이 되고 욕망 충족이 된다. 욕망의 조건은 결여이고, 결여가 욕망이다. 이런 결여-욕망이 시의 경우 기표들의 놀이, 향락, 주이상스가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현실과 이상, 존재와 언어에 대한 집요한 반성적 성찰도 중요하겠지만 가볍게 유희하는 것, 즐거움의 시쓰기도 예술의 중요한 가치이다.

[ABSTRACT]

Korean Modern Poetry and Ethics of Desire

-Focusing on Jouissance

Gang, Dong-u(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inner value these literal injustices and violations of literature that say, "Violate and enjoy" are of value. In other words, this article aims to discover new ethical values in the crack between the traditional essence of ethics and the anti-ethical or non-ethical trends that have recently appeared in contemporary Korean poetry.

The dominance of Korean poetry over the years has been the origin and nature of poetry's inner necessity and organic connection, or the purpose and spirit of social function and ethical meaning. In other words, ideology dominated Korean poetry, politics dominated and transcendence dominated. The rebelliousness and Subversiveness of poetry shown by ethics of jouissance on this soil is not familiar to us in our literary history. Poetry of desires and violations is most likely to produce experiences that are overwhelming, embarrassing, and blatantly shocking rather than aesthetic. Therefore, it seems that the task of poetry and art should be to produce newness or impact, not to try to reproduce things or to express aesthetic experiences. Confronting the grammar of existing poetry with new experiments and poetic imagination centered on young poets in the 2000s, it means to escape from this domination

and freedom in that sense.

Key word : jouissance, a poetry writing of violations, desire, ethics of desire, rebelliousness, the real, ethics of the real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민정, 『날으는 고슴도치 아가씨』, 열림원, 2005.
 김이듬, 『별 모양의 얼룩』, 천년의시작, 2005.
 김언희,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 민음사, 2000.
 들뢰즈 · 가타리, 『앙띠 오이디푸스』(최명관 역), 민음사, 1997.
 박찬일, 『나는 푸른 트럭을 탔다』, 민음사, 2002.
 브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1990.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 동문선, 2001.
 알렌카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b, 2004.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도서출판 기파랑, 2005.
 이승훈, 『라캉 거꾸로 읽기』, 월인, 2009.
 이승훈, 『라캉으로 시 읽기』, 문학동네, 2011.
 이종영, 『욕망에서 연대성으로』, 백의, 1998.
 인디고 연구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슬라보예 지젝 인터뷰), 궁리, 2012.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자크 알랭 밀레 편, 맹정현·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 새물결, 2008.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조말선, 『둥근 발자』, 창비, 2006.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 67-84면.
 질 들뢰즈,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2001.
 페터 비트머, 홍준기·이승미 옮김, 『욕망의 전복』, 한울아카데미, 1998.
 Bice Benvenuto and Roger Kennedy, 김종주 옮김, 『라캉의 정신분석 입문』, 하
 나의학사, 1999.

□ 논문 및 평론

고봉준, 「주이상스, 욕망을 넘어서는 실재의 윤리」, 『시현실』 2010 봄호, 10-22면.

권택영, 「프로이트에게 돌아가기: 라캉의 기표는 사랑인가 증오인가」, 『현대정신분석』,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04, 7-22면.

김석,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두 입장」,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5, 11-16면.

김석, 「주체화와 정신분석 윤리」,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6, 58-69면.

박대현, 「혁명의 결여와 주이상스」, 『시현실』 2010 봄호, 23-48면.

신명아, 「라캉의 정신분석 윤리학과 이마뉴엘 레비나스의 타자(the Other)의 윤리학 비교분석 연구: 타자 개념으로 중심으로」,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05, 13-33면.

양창렬, 「랑시에르 인터뷰 : “문학성에서 문학의 정치”까지」, 『문학과사회』, 2009 봄호, 441-458면.

이성민, 「두 개의 윤리 : 바디우와 라캉」, 『현대정신분석』,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1. 123-138면.

접수일 : 2019. 11. 22 총평일 : 2019. 12. 17 게재확정일 : 2019. 12. 29